

2024년 3월 19일(화)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 1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아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향 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 2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고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찢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 3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 담당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5(월)
손수량 안수집사	강성균 안수집사	박종훈 안수집사	이윤익 안수집사	박기철 안수집사	심재현1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415장 다함께
기도	손수량 안수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14~16 인도자
찬양	오 세상의 구주 새벽찬양대
설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는 공활하시다』 이상학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292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묵상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일	본문	제목
3월 21일(목)	요 16:7-8, 13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4년 3월 19일(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성히 풍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셨듯이 저희의 섬김과 사역현장에서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며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써 품위 있게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저희의 영광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 주님처럼 사역하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기억하여 주의 온 백성들이 기도의 불꽃을 태우며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희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전교인 저녁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험한 십자가에 담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